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아프로·아르헨티나인: 19세기 흑인 인구의 은폐 과정*

서성철**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Suh, Sung-Chul (2014) "Afro-Argentines as Social Minority: The Process of Concealment of Black Population in the 19th Century"

ABSTRACT

Since Argentina was constructed in the 19th century, the identity discourse which claims that the Argentine people are racially white and culturally European has been sustained. Before the Spanish colonists came to this region, the indigenous peoples *indios* lived there and in the 16th century the black Africans were introduced as slaves. However, although they contributed to Argentina in many ways, these racial groups disappeared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 and the massive settlement of European immigrants who poured into the country. Most importantly the existence of blacks was concealed deliberately by the white ruling elites' racist policy based on the theory of the evolutionis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cess of black Africans' alienation from mainstream society as a social minority, through the formation of European-white identity discourse, and the fictional background created through the mechanism of a national census. This discussion reveals how the Argentine ruling elites distorted and concealed the black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 of constructing a homogeneous society. In other words, this paper attempts to peel off the erroneous myth relating to the Argentine identity.

Key Words: Argentina, black slaves, identity, concealment, racism / 아르헨티나, 흑인노예, 정체성, 은폐, 인종차별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A00003).

** Sung-Chul Suh is HK research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Email: scsuh@pufs.ac.kr).

서론

아르헨티나인들은 자신들이 인종적으로는 백인이고 문화적으로는 유럽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백인들로 구성된 유일한 나라라는 생각은 아르헨티나 내부나 외부에서 의심할 바 없는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¹

한편, 아르헨티나인들은 건국 이래 하나의 국가에 통합되어 인종적 다양성이 없는 ‘동종사회’(sociedad homogénea)에서 조화롭게 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과거의 식민시기, 또는 그 이전의 고대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는 달리 19세기에서 그것을 찾는다. 다시 말해서 유럽·백인이라는 그들 정체성의 근거는 기껏해야 지금의 아르헨티나 인구 구성이 확립된 19세기 후반, 즉 유럽 이민이 대거 몰려왔던 시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남부의 광활한 땅에는 스페인 식민자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원주민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이곳에 왔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독립 이후, 국가형성 과정에서 유럽의 실증주의, 진화론에 근거한 인종 차별주의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확립되면서 흑인들은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1세기를 넘는 기간에 걸쳐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아르헨티나에 흑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담론이 탄생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아르헨티나 지배층은 아프리카 흑인 집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들이 아르헨티나에 기여한 부분을 무시하고자 할 때 그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거나”(invisibilizar) 은폐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에

1 실제로 아르헨티나 관련 정보나 자료를 일견하면 이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국가 정보(Country Reports)의 ‘아르헨티나 인구’(Population of Argentina)를 보면 아르헨티나의 인구 구성은 총인구 42,610,981명 중에서 백인(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인) 97%, 메스티소 3%, 원주민 또는 비백인 집단 3%로 나온다. <http://www.countryreports.org/country/Argentina/population/overview.html>

2 Geler(2004)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유럽·백인 신화는 유럽 이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도착하면서부터 탄생했다고 한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인들의 뿌리가 유럽에서 왔다는 “배에서 하선한 아르헨티나인”(una argentina que descende de los barcos)이라는 유명한 문구가 나온다(Morraso 2011, 7).

는 흑인이 없다”(en Argentina no hay negros)³라는 허구적 사실이 오랫동안 아르헨티나인들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허구를 탄생시키기 위해 흑인의 은폐가 필요했고 그것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유의하여 아르헨티나의 흑인들의 존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르헨티나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인 19세기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백인 국가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구조사를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 국가적 메커니즘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실제적 사라짐과 그에 기반해 만들어진 백인 신화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우선 아프리카 흑인이 아르헨티나에 유입되는 역사 및 흑인 공동체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고 아프리카 흑인사회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단일주의자와 연방주의자간의 싸움에서 비롯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와 흑인사회의 관계를 다룬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가형성 기간 중 유럽 이민 우대정책과 비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이미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 정책과 행동으로 구현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진화론과 인종주의에 입각한 배제의 신화가 어떻게 확립되고 지배 엘리트의 통치 전략에 맞추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프리카 문화의 사라짐과 관련해서는 유럽 백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칸돔베 춤이나 카니발과 같은 아프리카 전통 문화가 어떻게 국가적 차원에서 은폐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흑인 인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지는 인위적 과정을 인구조사와 인종 분류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르헨티나 지배 엘리트가 동중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구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이런 과정에서 흑인사회가 어떻게 왜곡되고 은폐됐는지 그 전후 사정을 밝힌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르헨

3 1947년 행해진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100%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1996년 메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아르헨티나에도 흑인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자, 그는 “아르헨티나에는 흑인이 없고, 흑인은 브라질”이라고 답한다. http://es.wikipedia.org/wiki/Racismo_en_la_Argentina

티나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은폐되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왜곡된 아르헨티나 정체성의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프리카 흑인 유입의 역사

아프리카 흑인들의 도래 및 배경

주지하다시피 아프리카인들은 원주민 인디오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리오 델라 플라타에 최초로 들어온 것은 1534년이다. 그러나 1595년에 이곳에 들어온 흑인의 수가 고작 30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면 16세기 아프리카인들의 아르헨티나로의 유입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곳으로 본격적으로 오게 된 시기는 17세기라고 할 수 있다. 1595년에서 1680년간 22,892명의 흑인들이, 그리고 18세기에 노예 수입이 정식으로 허가되면서 1700년에서 1750년간 약 14,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들어오게 된다(Andrews 1989, 25). 처음에는 흑인 남성들만 왔었고 뒤에 식민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흑인 여자들도 오게 되었다.

16세기, 리오 델라 플라타 지역은 페루처럼 은광이 풍부하거나 또는 누에바 에스파냐처럼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었다(Tur Donatti 2009). 그러나 리오 델라 플라타에 있던 스페인 대농장주들은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16세기 말경부터 노예 수입을 허가해 달라고 스페인 왕실에 청원을 하게 된다(Frigerio and Lamborghini 2011, 4).

당시 리오 델라 플라타는 페루의 광산으로 가려는 노동자들의 중간 기착지였다. 1536년, 페드로 데 멘도사(Pedro de Mendoza)가 이곳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건설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디오들의 저항과 이로 인해 인디오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1580년, 두 번째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건설된다. 이때부터 많은 수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리오 델라 플라타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들은 내륙 지방인 코르도바, 투쿠만,

4 대부분의 노예는 서부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아르헨티나에는 주로 앙골라나 콩고(반투족)의 아프리카인들이 왔었다(Gomes 2005).

살타 등으로 이동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파라과이, 칠레 및 페루(특히 포토시 광산)로 향하게 된다(Contarino Sparta 2011)⁵.

그러나 포토시 광산의 은이 고갈되면서 페루 내륙 지방은 더 이상 노예 노동력을 투입할만한 매력을 상실하게 되고 리오 델라 플라타의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1776년, 이 지역에 부왕령이 세워지게 된다(Contarino Sparta 2011).

아르헨티나는 국가형성 시기에 노예 노동력에 많이 의존했었다. 1740년에서 1810년간 4만5천여 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로 유입됨이 없이 직접 아르헨티나로 들어오게 된다(Contarino Sparta 2011).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위시한 도시로, 그리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거기서 그들은 ‘나시온’(nación)⁶이라 불리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자신들의 고향인 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종교결사 단체를 조직한다.⁷ 그리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각종 언론매체들, 신문⁸을 포함하여 그들 사이에서만 유포되었던 여러 잡지들을 출간한다(Kleidermacher 2011). 한편, 공동체 안에서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칸돔베(Candombe) 춤을 추거나 카니발과 같은 문화적 활동을 지속시켜 나갔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810년경,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 인구 중에서 흑인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고 백인은 20%였다(Frigerio and Lamborghini 2011, 8). 이들은 스페인 식민지의 다른 흑인 노예들이 그랬던 것처럼 농촌일, 목축업, 수공업, 가사노동 등 다양한 일에 종사했다.⁹

5 Andrews(1989)에 의하면 1715년에서 1752년간 약 9,970명의 흑인 노예들이 영국의 ‘British South Sea Company’에 의해 이곳으로 들어왔고 그 중 3/4은 아르헨티나 내륙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한다(Frigerio and Lamborghini 2011, 4, 재인용).

6 주요 ‘나시온’으로는 초기에 세워진 Congo, Cambundia, Benguela, Lubolo 및 Angola가 있다. 1840년에는 그 숫자가 40개, 1850년에는 5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Andrews 1989, 145). 아프리카 흑인 공동체인 ‘나시온’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대해서는 Chamosa(2003)를 참조할 것.

7 Andrews(1989)에 의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총 4개의 아프리카 종교 결사단체(San Baltasar, San Benito, Nuestra Señora del Rosario, Santa María del Covellón)가 있었다. 이런 종교 조직을 통해서 흑인들은 그들 고유의 신앙과 전통을 지켰는데 이 결사단체는 뒤에 가톨릭교회나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박해와 탄압을 받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Frigerio and Lamborghini(2011, 5-8)를 참조할 것.

8 당시 흑인사회가 발간한 주요 신문으로서 *La Broma*, *La Juventud*, *La Perla*, *La Igualdad*, *El Aspirante*가 있었다(Geler 2010).

9 아르헨티나 북부의 멘도사에서 흑인들은 포도 농장에서 일했고, 남부 파타고니아에서는 소금 장사를 했다고 한다(Tur Donatti 2005). 또 이들은 내륙지방의 팜파스에서 목동 일을 했었다.

그들은 경제, 문화면에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아르헨티나 군대에서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영국의 침략전쟁(1806-1807), 스페인과의 독립전쟁¹⁰, 브라질과의 전쟁(1825-1828), 단일주의자(los unitarios)와 연방주의자(los federales)간의 내전¹¹, 파라과이에 대항한 삼국동맹전쟁¹²에 참가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들은 군대에 복무하면 자유를 주겠다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약속을 믿고 대거 입대했다.¹³ 이렇게 흑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전쟁에 참가하면서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의 수는 현격히 감소하게 된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휩쓴 전염병으로 많은 수의 흑인들이 죽어갔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의 독립 혁명과 19세기 중반의 노예제도 철폐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도 사라지지 않았다.¹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대량으로 이민이 들어오면서부터이다.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젊은 독신자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 그들이 흑인이나 몰라토와 결혼을 하거나 쌍을 이루면서 인종간의 혼혈화가 급속히 진행된다. 이로 인하여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게 된다(Tur Donatti 2009).

10 독립전쟁 시기, 아르헨티나 독립군의 약 60%는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산마르틴 장군의 휘하에서 아르헨티나 독립을 위해서 싸웠다. 칠레 해방을 위한 독립전쟁 중, 마이푸 전투에서 400여명의 아프로·아르헨티나 병사들이 사망하기도 한다(Lanuza 1967, 71).

11 단일주의자와 연방주의자간의 소위 카세로스(Caseros), 세페다(Cepeda) 및 파본(Pavón) 전투에서 흑인들은 각각 단일주의자와 연방주의자 편에 서서 서로 싸웠다.

12 삼국동맹전쟁(Guerra de la Triple Alianza)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이 연합하여 파라과이를 상대로 1864년에서 1870년까지 6년간 치른 전쟁임.

13 1801년에는 자유 흑인 병사와 백인 장교로 구성된 ‘파르도·모레노 중대’(Compañías de Pardos y Morenos)가 창설되었다. 한편, 1807년에는 흑인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후 제정된 여러 법을 통해 흑인 노예들로 구성된 군대가 창설된다. 20세기에 들어와 흑인 후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게 된다(Contarino Sparta 2011).

14 에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 가우초의 전형인 마르틴 피에로의 입을 빌려 흑인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은 백인을 창조하고, 베드로 성인은 몰라토를, 악마는 지옥 구멍이를 위해 흑인들을 만들었다네!”(José Hernández 1973, 35). 당시, 흑인과 인디오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 몰라토는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여성 몰라토는 그들이 지닌 피부의 탄력과 부드러움, 성적인 매력으로 인해 크리오요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 이런 부류에는 흑인을 경멸했던 사르미엔토도 포함되어 있다(Tur Donatti 2009).

한편, 19세기 이래 그동안 흑인들이 주로 담당했던 일들을 유럽 이민들이 떠맡게 되면서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흑인들은 자신들의 인종적인 특색과 정체성을 잃게 되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종사했던 일자리마저 백인들에게 내주면서 도시 변두리로 내몰리고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소외된 변방적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로사스 시대와 흑인

19세기 아르헨티나 흑인사회 및 흑인들의 은폐 과정을 이해하는데 로사스¹⁵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로사스로 대변되는 연방주의자와 그에 반대하는 단일주의자, 이 양 세력의 정치투쟁 과정에서 비롯된 희생물이기 때문이다. Ocoró Loango(2010)의 지적처럼 흑인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탄압받고 사라지는 데에 로사스는 상당 부분 기여한다.

로사스 시대에 와서 흑인들의 존재는 가장 두드러지고 아르헨티나 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기, 로사스의 하층 계급에 대한 배려로 흑인들의 사회적 신분은 상승될 수 있었다. 로사스에게 흑인들은 자신을 떠받치는 주요 기반이었다. 그의 집권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의 30%는 흑인이었다. 많은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가우초로서 팜파스의 목장 노동을 담당했었다. 한편, 흑인들은 로사스 정부나 군대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다.

로사스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어떤 때는 흑인들은 존중하면서 또 어떤 때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들을 잘 활용했다.¹⁶ 그는 흑인들의 축제인 칸돔베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흑인들의 환심을 사는 등, 그들에 대한 정치적 관리를 통해 이들이 연방주의자들의 편에 서도록 만들었다.¹⁷

로사스는 흑인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통해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단일주의자들은 로사스에 대한 증오심을 흑인과 연결시켰다. 단일주의자들의 눈에 비쳐진 흑인들은 로사스 체제에 봉사하는 “꼭두각

15 로사스는 두 번에 걸쳐(1829-1832, 1835-1852)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를 역임하였다.

16 로사스는 자신의 공포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소르카’(mazorca)라는 비밀 경찰기구를 창설하여 그에 반대하는 자들을 탄압한다. 로사스의 흑인에 대한 이런 태도로 인해 흑인사회는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로사스는 그들로부터 신격화된다.

17 1829년에서 1852년간 로사스 정부 하에서 자유 흑인들과 노예들은 쉽게 축제를 열 수 있었고 춤을 출 수 있었다. 로사스 자신과 가족들은 흑인들의 모임에 자주 참석했고 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Ocoró Loango 2010).

시”(marioneta)로서 밀고자, 첩자, 배반자로 간주되었다(Oconó Loango 2010, 57).

아프로·아르헨티나 사회 전체가 일치단결해 로사스를 지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로사스와 흑인사회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었고 흑인들 대부분이 로사스의 대의명분에 공감하고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Andrews 1989). 앞서 언급했지만, 흑인들은 로사스의 연방주의자 군대에 들어가 많은 전투에 참가하였다.

로사스 시대는 대목장주로서 로사스가 지닌 경제적 위치 및 그의 특별한 개인적 성격으로 인해 모순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열렬한 연방주의자로 자처했지만 권력을 잡은 후에는 중앙집권을 확립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한다 (Fuentes 1997, 325). 그의 이런 이중적 태도는 노예제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자신의 통치 전략에 따라 노예제도를 장려하기도 하고, 노예무역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흑인들이 연방주의자의 대의에 더 공감하여 입대했지만 단일주의자들의 군대에서도 복무한 것을 보면 이들은 연방주의자나 단일주의자에 의해 공히 이용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일주의자들이 흑인들에 대해 일관되게 인종중심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면, 연방주의자들은 흑인 노예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지만 흑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일주의자들에 비해 훨씬 수용적인 입장을 택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주의자들은 1837년에 노예매매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1840년에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철폐한다.

흑인 사회는 로사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였던 시절에 그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로사스가 실각한 후 그들의 처지는 확연히 바뀌게 된다. 19세기 내내 백인들은 흑인 집단을 경멸하고 무시했으며 로사스 몰락 후 단일주의자들의 흑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더욱 심해져 갔다. 이때부터 단일주의자들은 로사스 시대의 기억들을 지우면서 로사스에 협력한 흑인들을 야만의 상징으로 대치시키고(Kleidermacher 2012), 로사스와 흑인들 간에 연결된 모든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인종 차별과 백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된다(Ocoró Loango 2010, 57).

1852년, 로사스는 몰락하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 연방주의 독재자에 대한 충성심은 이후에도 오래 지속된다. 로사스가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아니면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양측이 협력관계를 구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로사스 체제가 붕괴한 후 아르헨티나

국가형성 기간을 전후하여 흑인들이 겪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로사스에 협력한 대가는 너무도 컸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사스 시대에 흑인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그것이 역으로 단일주의·자유주의자들이 흑인을 탄압하고 보복하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흑인 집단의 은폐(invisibilización)¹⁸

국가 이데올로기와 인종차별

19세기 중반, 아르헨티나는 1853년에 제정된 헌법을 통해서 국가형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 헌법으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은 유럽 이민의 선호를 명문화하면서 유럽 이민과 비유럽 이민간의 차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¹⁹ 헌법 25조²⁰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이곳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유럽 이민을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Contarino Sparta 2011).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의 유럽 백인 우대와 인종차별주의는 헌법에 이미 그 합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 사르미엔토(Domingo F. Sarmiento)는 교육을 받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서구 선진국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여 인구가 희소한 내륙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개발을 위한 인력과 문명의 전도사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정책 수행 과정에서 가우초나 인디오를 한층 더 핍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Uh 1997, 170).

18 흑인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 출현했다가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학자들은 스페인어로 ‘visibilización’과 ‘invisibilización’이라는 표현을 왕왕 사용한다. 여기서 ‘invisibilización’은 한국어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즉 “비가시화”의 의미를 띄고 있으나 내용이나 문맥상으로는 “감춤”, 또는 “은폐”(ocultamiento)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르헨티나 지배층은 유럽 백인의 우월성에 입각하여 흑인들의 존재를 고의로 감추거나, 사라지게 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invisibilización’이라는 용어를 때때로 “은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자 한다.

19 헌법 25조에 천명된 유럽 이민과 비유럽 이민간의 구별은 총 7차례에 걸친 헌법개정(1860, 1868, 1898, 1949, 1957, 1972, 1994)으로 확립된다.

20 헌법 2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유럽 이민을 장려한다. 땅을 경작하고, 산업을 촉진시키고 학문과 예술을 가르치기 위해 아르헨티나 땅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유럽인이라고 하더라도 스페인, 이탈리아인들은 비호감 그룹에 분류되어 제외되어 있었²¹ “아르헨티나의 인구를 개선할 인종”은 유럽 북부, 다시 말해서, 당시 가장 발전한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원했던 것은 “영국의 자유, 프랑스의 문화, 미국의 근면”이었다(Contarino Sparta 2011).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인들의 이민이 실패하고, 이탈리아인, 스페인인들이 대거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면서 이들 남부 유럽인 집단도 “유럽인”, “백인”으로 간주된다.

당시, 아르헨티나 엘리트들은 광대한 땅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통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알베르디(Juan B. Alberdi)의 “통치는 사람을 정주시키는 것이다”(gobernar es poblar)²²라는 유명한 이데올로기가 나온다. 그에 따르면, “정주라는 것은 교육시키고,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며, 인종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인도인, 아프리카 흑인들을 정주시키는 것은 문명화가 아닌 야만으로 가는”(Alberdi 2006, 24) 길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흑인을 포함하여 비백인계 사람들의 이민은 오랜 동안 금지된다.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백인·유럽의 우월감과 인종차별 조장은 교육을 통해 강화되었다. 교육자이자 철학자로서 뒤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르미엔토나 1853년의 헌법을 입안했던 알베르디는 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일찍 깨달아 그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다. 그러나 흑인들은 교육의 수혜에서 제외되는데,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엘리트들의 눈에 흑인 같은 “예속적인 인종들”(las razas serviles)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도 문명사회에는 합류할 수 없는 인종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21 “3백만명의 인디오나 기독교인, 가톨릭인들이 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4백만명의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인들도 그것을 실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수 스페인인들은 공화국을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천명한 체제를 위해서 사람들을 정주시키고자 한다면 앵글로색슨인들의 정주를 장려해야만 한다. 진보와 문명을 이룩한 이 인종의 능동적인 협력 없이 우리들 홀로 이런 과업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Alberdi 2006). 당시, 알베르디는 스페인어 대신 프랑스어를 국어로 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가 볼 때 스페인 기독교 전통은 진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Contarino Sparta 2011).

22 “정주하는 것은 미국이 했던 것처럼 교육하고, 개선하고, 문명화를 이루고 부유하게 하며,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라는 것은 사람을 정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라는 수단을 통해서 문명화를 이루는 것은 문명화된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우리들의 아메리카를 자유롭고 산업화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자유롭고 산업화된 유럽 인구들을 정주시켜야만 한다”(Alberdi 2006).

의하면 흑인들이 열등한 것은 흑인종의 사회 심리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 열등인자는 유전을 통해 전해진다.

한편, 이 시기 흑인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및 담론이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고착화된다. 인디오에게 살인자, 도둑이라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늘 따라다녔던 것처럼(Fuentes 1997, 351-352) 흑인들은 난잡하고 도덕적인 관념이 없는 인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된다.²³ 이런 논리에 따라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흑인들을 배제하고 유럽 이민을 고려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Kleidermacher 2012).

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기된 “누구라도 아르헨티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아르헨티나는 “인종의 도가니”(crisol de raza)(Geler 2004)이고 이곳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신화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헌법에서도 예외적으로 취급되어 오랜 동안 이등 국민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가 장려하는 이런 백인 우대 이민정책으로 유럽 이민들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면서 흑인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잊혀져 갔다.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의 구성원이었던 인디오 원주민이나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지워지고 아르헨티나라는 이름의 근대 국가에서 인종적인 차이는 해결됐다는 허구가 탄생하게 된다(Contarino Sparta 2011).

문명화 및 배제의 신화

19세기 독립 이후 라틴아메리카 지배층의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문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있었다고 할 때,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이 범한 오류는 Fuentes(1997)가 지적하듯, 농산물이나 토지의 공유제도에 기반을 둔 고대 아메리카의 생활양식,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인디오나 흑인들의 대체문화 등 기존의 모든 모델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 안에서 하나만 선택했던 데에 있다. 그들의 문명화 개념은 19세기

23 흑인들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에 문학작품의 기여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체베리아(José Estebán Echverría)의 『엘 마타데로』(*El Matadero*), 마르몰(José Marmól)의 『아말리아』(*Amalia*), 로페스(Vicente Fidel López)의 『이교도의 애인』(*La novia del hereje*) 같은 소설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실증주의 철학의 모토인 “질서와 진보”에 입각한 것으로서²⁴ 이에 따르면 진보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하는 논리가 탄생한다.

아르헨티나의 자유주의자들은 유럽의 주요 나라들, 특히 미국이 성취한 경제, 사회 및 문화 부문의 발전과 영토의 지리적 확대에 감탄하면서 인디오나 아프리카 흑인 및 비백인 인종은 열등하다는, 당시의 ‘과학적 인종주의’(racismo científico)²⁵ 이론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사르미엔토는 『파쿤도: 문명과 야만』(*Facundo: Civilización y Barbarie*)에서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의 성공은 백인 인구의 인종적 우월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인디오, gaucho 등 야만인들이 문명화를 가로막는 것이 국가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을 방해하는 인종이나 계층은 국가적 통합의 대상이기보다는 뿌리 뽑혀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배제의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Uh 1997, 157-158). 이런 믿음은 유럽인이나 그들의 후손들을 많이 정주시키면 자연적으로 유럽의 진보 모델이 이식될 것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인구를 유럽 백인들로 구성하자는 국가적 계획에 따라 “백인화”(blanquear) 정책이 나오게 된다(Gomes 2005). 1875년 아베야네다(Nicolás Avellaneda) 대통령은 인디오를 제거하고 변경 지방을 점령하는 것은 사람들을 정주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그 구체적 조치로 1876년에 법령 817조를 공포한다.²⁶

1879년, ‘사막의 전쟁’(Campaña del Desierto)으로 명명된 로카(Julio Argentino Roca) 장군의 아르헨티나 남부의 인디오 토벌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상과 계획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마푸체족은 전멸했고 인디오들은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인디오

24 콩트의 실증주의 철학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예측 가능하고 보편적인 단계로 발전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오로지 진보를 향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하여 자국이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알기만 하면 족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실증주의의 모토인 “질서와 진보”는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던 19세기 라틴아메리카 모든 정부의 발상의 원천이 된다(Fuentes 1997, 351).

25 프랑스의 고비노(Arthur de Gobineau)나 영국의 챔벌레인(Houston Stewart Chamberlain)은 유럽이 발전하고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백인 유럽인들의 우전자가 타인종에 비해 우월하다는 점을 든다(Kleidmarcher 2012).

26 이민과 식민과 관련한 법령 817조는 ‘아베야네다 법’(Ley Avellaneda)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표단을 유럽에 파견하여 유럽 이민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벌인다.

땅을 ‘사막’으로 간주한 것은 원주민 존재의 은폐에 다름이 아니며, ‘사막의 전쟁’이라는 용어 역시 인디오를 상대로 벌였던 전쟁을 미화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Bartolomé(2003)는 사막이라는 공간에는 백인과는 전혀 양립 불가능한 인디오 인종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정주시키는 것(poblar)은 역설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matar)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인디오 박멸의 정당화와 은폐의 메커니즘은 당연히 흑인 집단에도 적용되었고 결국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사라진 존재”(desaparecido)로 간주된다.

1880년경이 되면 ‘동질성’(homogeneidad)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인종적, 종족적 결합은 더 이상 논의의 주제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미 흑인들은 피의 혼혈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사회 최하층으로 전락하고, 이제 피부색은 각각의 사람이 어느 사회 계층에 속해 있는지, 경제 상태는 어떤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은폐, 사라짐, 허구

아프리카 문화의 은폐: 칸돔베의 사례

유럽 백인으로 이루어진 동종사회를 건설하려는 국가 계획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흑인 문화는 무시되거나 은폐로 나타난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인종의 다양성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유럽적인 것에 맞춘 ‘동질성’ 추구를 국가적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문화 역시 다양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식민시기 이래 흑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던 칸돔베 춤²⁷이나 카니발에 대한 탄압도 이런 국가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식민시기, 각각의 흑인사회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27 칸돔베 춤은 앙골라 출신 등 아프리카 노예들로부터 유래한 춤으로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흑인사회에서 주로 유행하였다. 약기로는 ‘야마도르’(Llamador)라는 둔중한 소리를 지닌 베이스 북과 ‘레피카도르’(Repicador)라는 날카로운 음을 지닌 북이 있다. 칸돔베는 이 두 종류의 북에서 나오는 리듬에 맞춰 추는 집단 군무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이 춤은 로사스 시대를 제외하고는 주로 흑인 공동체나 그들의 주거지에서만 허용되었다.

그들만의 집단을 조직하고 결집하여 식민자들에 대한 저항을 표출했다. 전술한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흑인사회 역시 지리적, 언어적으로 같은 기원과 동질성을 가진 공동체 ‘나시온’을 곳곳에 세웠다. 이 흑인만의 공간에서 노예들은 칸돔베 춤을 통해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었다.

한편 카니발 역시 칸돔베가 수행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들은 매년 1월 5일, 발타사르 흑인왕의 날을 맞아 축제를 벌였고 그 기간을 이용하여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사기 위한 기금을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이들은 이런 문화적 행동이나 집회를 통해서 정구적으로 모일 수 있었고, 아르헨티나 법이 부정한 흑인 집단의 친교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다(Cirio 2003).

1750년에서 1850년간 칸돔베는 오로지 흑인사회에서 허용되었던 춤으로서 그들의 문화적 활동은 아르헨티나 사회에는 전혀 동화되지 않았다.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칸돔베라는 춤을 통해서 노예 공동체 사회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춤을 추는 것은 분명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규모와는 관계없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이라고도 볼 수 있다. 흑인 공동체와 식민당국간에 이 춤의 허용을 두고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거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춤을 반복해서 금지시킨 것을 보면 그들의 문화적 행위는 분명히 정치적 의미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Andrews 1989).²⁸ 식민지 당국은 이 춤을 통해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이 하나로 단결되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늘 두려워했다(Ocoró Loango 2010, 51).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백인들은 이 춤이 음탕하고 관능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면서 노예 주인들로 하여금 금지시키라는 압력을 가한다. 이런 상황에서 칸돔베 춤은 비밀스런 장소에서 은밀히 행해지고, 1825년에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이 춤을 추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Goldberg 1995).

카니발은 흑인사회 고유의 축제는 아니었지만 흑인들은 이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카니발은 유럽, 인디오, 흑인 요소가 융합된 축제로서 각각의 인종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줄

28 아프리카 문화가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들어온 흑인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두 신앙에서 이 점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아이티의 도망노예(cimarrón)들은 라쿠(Lakou) 공동체를, 브라질의 흑인들은 킬롬보(Quilombo) 공동체를 세웠다. 이 중에서 특히 아이티의 경우는 종교와 정치의 결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라쿠 흑인 공동체에서 신봉된 보두 신앙은 1804년 아이티의 독립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Suh(2014)를 참조할 것.

수 있었다. 바흐친의 카니발 개념을 염두에 두면, 아르헨티나 카니발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인 흑인이 주연으로 등장하는데서 보듯 식민지 당국이 부과한 위계질서에 대한 전복, 인종 구분의 철폐 및 사회 계급에 대한 일시적인 정지라는 카니발의 본래 의미가 잘 살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카니발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 종족, 집단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흑인사회는 음악과 춤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

Romero(2005)에 의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니발은 당시 가장 대중적인 축제였다고 하는데 식민지 당국은 주기적으로 이 축제를 규제하고 금지시켰다고 한다. 교회와 행정 당국은 서로 합세하여 이 축제가 사회 질서나 관습을 어지럽히고 문명화나 진보에 역행하며 기독교 윤리에 어긋난다는 구실로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공격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행해졌던 이 카니발은 식민시기 이래 비판과 금지의 대상이었고, 아르헨티나 독립 이후 계몽주의에 입각한 국가 건설과 근대 시민주의의 확립 차원에서 계속 탄압을 받았다.

특히 이 카니발에서 흑인들이 표현했던 춤이나 음악은 더더욱 탄압을 받고 금지 당하게 된다. 당시 백인들에 비쳐진 흑인들의 춤은 “악마의 것”(cosa del diablo)으로 비쳐졌고, 난잡하고 관능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770년 베르티스(Vértiz) 주지사는 흑인들의 춤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극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공포한다(Ocoró Loango 2010, 53). 그러나 몇몇 경우, 식민지 당국은 흑인 공동체의 항의나 청원, 또는 흑인들이 여러 전쟁에서 참가하여 국가에 공헌한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흑인들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풀고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주기적인 규제와 허용은 리바다비아(Bernardino Rivadavia) 정부 시대에까지 이어진다. 물론 춤을 허용한 경우에도 당국이 감시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²⁹

칸돔베는 아르헨티나 혁명 후 금지되었다가 로사스 시대에 들어와 다시 출현하고 활기를 띠게 되었다.³⁰ 그러나 로사스가 몰락하면서 칸돔베 춤 역시

29 아프리카 흑인들이 주로 추었던 판당고(fandango) 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의회(cabildo)는 식민당국의 이런 허용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성격을 띤 이런 집회에서 흑인들이 결집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Ocoró Loango 2010, 53).

30 로사스의 칸돔베 춤에 대한 배려는 그가 흑인사회의 민속 축제에 자주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로사스는 1820년과 1838년, 이 춤에 취해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1838년 5월, 독립기념일을 맞아 흑인들을 초청하여 광장에서 춤을 추게 한다. 당시 로사스를 반대하던 아르헨티나 엘리트는 이를 경건해야 할 국가행사를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노했다(Ocoró Loango 2010).

그동안 누려왔던 힘을 잃게 되었다(Cirio 2003). 1852년, 로사스 연방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단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축제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흑인 공동체 사회를 탄압하게 된다. 이렇게 아프리카 흑인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아프로·아르헨티나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춤이 유행하면서 칸돔베는 19세기 후반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흑인들은 아르헨티나 사회에 통합되기 위하여 그들 아프리카 선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 춤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들은 이 춤을 숨겨야만 할 부끄러운 춤으로 간주하였고 그들 역시 이제는 왈츠나 폴카 등 백인 사이에서 유행하던 춤을 추게 되었다.

사회적 위협 세력으로서 아프리카 흑인사회가 사라진 후, 칸돔베를 비롯한 흑인 예술은 특정한 한 인종 집단의 해방적 표현이라는 것을 버리고 ‘아르헨티나성’(argentinidad)에 통합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무르가(Murga), 파야다(Payada)³¹, 탱고는 백인들로부터는 배척을 받았지만 예술을 통한 대사회적 움직임으로서 아르헨티나 사회에 흡수된다. Andrews(1989)가 지적한 것처럼, 무용학교에서 가난한 백인과 흑인들간의 인종적 접촉을 통해서 백인 젊은이들이 흑인들의 고유한 춤인 칸돔베를 자기 식으로 모방하면서 새로운 밀롱가 춤이 탄생하게 되고, 또 이 아프로·아르헨티나 춤인 밀롱가는 변형 과정을 겪으며 후에 탱고로 발전하게 된다.

인구조사와 인위적 은폐

앞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들의 백인·유럽 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는 백인·유럽 범주 안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문화를 없애고 또 그들 아프리카 인종을 사라지게 하는 것(invisibilizar)이었다.³²

식민시기,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무역은 합법보다는 밀무역에 더 의존하고 있었던 이유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얼마나 유입됐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밀무역으로 들어온 노예 수가 월등히 많았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Studer(1958)에 의하면 1602년에서 1625년간 12,778명의

31 무르가는 스페인에서 유래한 대중음악으로서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남미 여러 나라의 축제에서 많이 불려지고, 파야다는 가우초의 민속 음악이다.

32 “Racimo en la Argentina”. http://es.wikipedia.org/wiki/Racismo_en_la_Argentina

아프리카 흑인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스페인 왕실의 허가를 받은 노예는 고작 288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2세기간 아프리카인들의 아르헨티나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한 차원에서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인 왕실은 1778년 외국 상인들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예무역은 성행하게 된다. 당시 카를로스 3세의 명령으로 1778년에 리오 델라 플라타 부왕령에서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카타마르카, 투쿠만, 코르도바, 살타 지역의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³³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는 총 인구 24,363명 중 흑인은 7,236명으로서 29.7%를 점한다(표 1 참조). 아르헨티나 전체로 보면 흑인 인구는 9만4천여명으로 총인구 21만 명 중 44.5%를 점한다.

표 1.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조사 통계(1778-1887, 총8회)

연도	백인	인디오/ 메스티소	아프로· 아르헨티나인	자료 불명	총인구	흑인 비율
1778	16,023	1,104	7,236	0	24,363	29.7%
1806	15,078	347	6,650	3,329	25,404	30.1%
1810	22,793	1,115	9,615	0	32,558	29.5%
1822	40,016	152	13,685	0	55,416	24.7%
1827	34,067	-	8,321	0	42,540	19.5%
1836	42,445	-	14,906	5,684	63,035	26.0%
1838	42,312	-	14,928	5,717	62,957	26.1%
1887	425,370	-	8,005	0	433,375	1.8%

출처: Andrews(1980, 66), Frigerio and Lamborghini(2011)에서 재인용.

1795년에 행해진 인구조사를 보면 2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흑인 인구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떨어진다. 그러나 Contarino Sparta(2011)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 통계는 허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인종간에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순수 아프리카인은 그 수가 줄었지만 아프리카 피를 지닌 혼혈인들의 수는 결코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⁴

33 이 인구조사에서 아르헨티나 북부의 투쿠만 지역의 흑인 인구는 42%,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54%, 카타마르카 52%, 살타 46%, 코르도바 44%, 멘도사 24%, 라리오하 20%, 산후안 16%, 후후이 13%, 산루이스 9%로 되어 있다(Gomes 2005).

이렇게 아프리카 출신의 인구가 실제로 줄지 않았는데도 인구조사 결과에서 그것이 감소된 결과로 나왔다면 이는 아르헨티나의 인구를 구성하는 인자로서 흑인들이 갑자기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Gomes(2005)의 표현대로 “인위적인 사라짐”(desaparición artificial)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8세기나 19세기에 “순수”(pura) 아프리카 출신의 아르헨티나인들의 숫자가 하향 추세를 보였다고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투쿠만 도시의 경우 1778년에 인디오, 메스티소, 흑인, 몰라토의 수가 25,507명이었다면 백인들은 5,809명으로 나온다. 후후이의 경우, 통계상으로 인디오나 메스티소의 인구가 14,470명이었던데 반해 백인들의 수는 923명으로 나온다. 다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백인들의 수는 표 1에서 보듯 흑인이나 메스티소에 비해 훨씬 많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⁵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아르헨티나 독립전쟁을 전후하여 흑인, 인디오, 메스티소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1838년에서 1887년은 흑인 인구의 위상,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위적 사라짐”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행해진 1869년의 인구조사³⁶ 부터 통계에 인종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보듯, 1887년의 인구조사에서는 오로지 아프로·아르헨티나인만 통계에 나오고 인디오나 메스티소는 제외되어 있다(Guzmán 2006). 그리고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흑인들이 여러 이유로, 특히 여러 전쟁에 참전하면서 많이 죽어³⁷ 전체 아르헨티나 구성원 중에서 흑인 남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 것은

34 예를 들어, 스페인 반도인들은 라틴아메리카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산마르틴 장군의 비서였던 몬테아구도(Bernardo de Monteagudo)를 “흑인 자식”(hijo de la negra)이라고 경멸적으로 불렀고, 아르헨티나 초대 대통령이었던 리바다비아에게는 몰라토를 지칭하는 “초콜릿 박사”(el doctor Chocolate)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Tur Donatti 2005).

35 1744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구 6,035명 중에서 백인은 73%, 흑인과 몰라토는 17%, 나머지는 인디오나 메스티소로 되어있다. 1778년에는 비백인의 수는 증가하여 총 24,451명 중 백인은 67%, 흑인, 몰라토는 29%, 인디오, 메스티소는 5%를 차지한다. 18세기 중반의 비백인 인구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우세했던 인종은 흑인으로서 그 뒤를 몰라토, 인디오, 메스티소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흑인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인 인구와 비교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는 흑인들이 여전히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Guzmán 2006).

36 1869년의 인구조사는 순전히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조사의 목적은 군사적으로 인디오의 거주 지역을 공격하기에 앞서 인디오의 인구수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로카 장군에 의한 ‘사막의 전쟁’이 일어나고 1884년에는 인디오 거주지였던 차코를 점령한다(Ocoró Loango 2010, 60).

37 아르헨티나 독립전쟁과 국경전쟁 및 인디오 소탕 작전에서 많은 수의 흑인들이 희생되었다.

사실이다.³⁸ 흑인들의 감소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소로는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노예제도의 폐지로 해방은 됐지만 흑인들의 열악한 환경 및 처지에서 기인한 높은 사망률을 들 수 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변두리의 빈민 구역을 휩쓴 전염병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Kleidmarcher 2012).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전쟁, 전염병 등으로 흑인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르헨티나 지배계층이 선전하듯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한다.³⁹ 실제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백인으로 이루어진 동종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및 인구조사 담당기관)가 의도적으로 인종 분류를 자의적으로 했다는 것에 있다(Contarino Sparta 2011). 표 1에서 보듯 1838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수는 14,928명으로서 이 도시 인구의 26%를 차지한다. 아프로·아르헨티나인 인구가 1838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은 여러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40년 뒤인 1887년에는 흑인 인구는 8,005명으로 통계되고 전체 인구 중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1.8%로 푹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인다. 1887년에 전체 인구에서 흑인의 비중이 떨어진 것은 분명 유럽 이민의 대거 유입에 따른 결과지만, 흑인 인구가 8,000여명으로 축소된 것은 인구조사 시 인종적으로 ‘파르도’(pardo)나 ‘모레노’(moreno)로 불렸던 흑인들을 백인으로 분류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서(Andrews 1989) 이는 분명 정부의 고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Ocoró Loango 2010). 여기서 중요한 것은 Contarino Sparta(2011)가 지적한 것처럼, 흑인 인구의 수가 아니라 흑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점이다.

López(2006)에 의하면 당시 인구조사를 담당했던 기관은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을 “미지의 인종”(población desconocida)으로 분류했고, 이 명칭의 사용을 통해 그들이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흔적을 감추고 동시에 그와 관련한 아프리카 선조들의 등록 기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의 공식문서에는 이제까지 흑인을 지칭했던 ‘네그로’(negro), 파르도, 모레

38 이런 이유로 19세기 초 흑인 인구 중에서 여성들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다. 1827년의 통계자료에는 흑인 여성 백명당 흑인, 몰라도 남성의 숫자는 58명의 비율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었던 여러 흑인 조직들이나 단체는 여성들의 수중에 있었다(Contarino Sparta 2011).

39 아르헨티나에는 더 이상 흑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지배층은 원래 소수였던 흑인들이 독립전쟁과 내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논리를 든다. 이는 백인 엘리트의 주도적인 담론으로 오래 자리 잡는다(Morasso 2011, 6).

노, ‘유색인종’(de color)과 같은 용어는 사라지고 이들 유색인을 하나로 묶는 “중간적 분류”(Guzmán 2006), 때로는 전혀 다른 인종집단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어느 인종도 특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트리게뇨’(triguño)⁴⁰라는 새로운 인종 분류 용어가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흑인들을 피부색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아프리카 선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트리게뇨라는 용어로 지칭함으로써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그들의 아프리카 정체성을 잃게 된다(Guzmán 2006). 그리고 인구조사 통계상 트리게뇨가 백인으로 분류되면서 흑인 인구는 공식 서류상으로 사라지게 된다(López 2006, 7).⁴¹

그러나 공식적인 인구조사에서 흑인들은 지워지지만 흑인사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 증거는 그 시기에도 흑인 공동체나 상부상조 조직은 여전히 기능을 발휘했고 흑인 언론이나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의 문화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880년에서 1890년 사이, 흑인사회가 발간한 신문 기사나 또는 흑인 작가들이 쓴 책자들에는 정작 흑인 인구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없고 단지 흑인들의 낮은 경제적 위치에 대한 개탄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정황은 흑인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Ocoró Loango 2010, 58).

상기 언급한데서 보듯, 흑인 인구를 은폐하려는 기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Otero(2006)는 이런 점에서 인구통계는 백인 국가의 이미지를 유포,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고 언급한다. 이런 은폐 기도는 인디오에 먼저 적용되어 그들은 흑인보다 앞서 인구조사 통계에서 사라지게 되며, 이후에 행해진 인구조사에서는 흑인과 마찬가지로 아예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Otero 2006, 335).

물론, 이런 통계 장치는 엘리트 지배층이 추구한 백인화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에 의거하여 문명화 추진의 장애물

40 트리게뇨(triguño)라는 용어는 밀이라는 뜻의 ‘트리고’(trigo)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López 2006, 7), 직역하면 트리게뇨는 밀의 색을 지닌 인종이 된다.

41 1887년 이후의 인구조사부터 인종 분류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에 상응하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부가 깨끗한 흑인은 유럽 백인과 함께 묶여지고, 그렇지 않은 흑인은 거무스레한 남부 유럽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분류된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초에 카보 베르데(Cabo Verde) 및 남아프리카에서 상당수의 흑인들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런 상황은 20세기 내내 지속된다.

로 간주된 흑인들을 제거하여 백인만으로 이루어진 동종사회를 건설코자했던 지배층의 희망은 바로 이 인구조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Ocoró Loango 2010, 60). 물론, 이런 은폐 과정은 흑인들이 자신의 아프리카 선조를 부정하거나 흔적을 지우면 지을수록 사회적 신분의 상승 기회는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백인화”(blanqueamiento)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추진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요약하자면, 흑인 인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19세기를 통해 현격히 낮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흑인 인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분명히 감소했다. 그리고 19세기 유럽에서 온 대량 이민으로 인하여 아르헨티나 전체인구 중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지배층이나 사회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듯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아르헨티나 백인 신화를 건설하려는 인구조사 담당자들, 통계학자, 역사학자, 저술가들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졌을 뿐이다 (Andrews 1989, 131). Solomiansky(2003)의 표현을 따르면, 아프리카 흑인들의 사라짐은 사르미엔토로 대변되는 일군의 집단이 “은폐 작전”(operativa de invisibilidad)을 통해서 자행한 “서류상의 학살”(genocidio discursivo)이라고 할 수 있다(Ocoró Loango 2010, 58, 재인용).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은 흑인들의 존재는 아르헨티나 지배 엘리트가 만든 상상된 동종사회의 건설이라는 신화 속에서 인위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백인·유럽이라는 아르헨티나의 정체성은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가 동종사회라는 믿음은 아르헨티나 과두계급이 지배한 공화국 정부 시절에 퍼진 것으로서, 여기에는 지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19세기 국가형성 기간 중, 인종적으로는 백인, 문화적으로 유럽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아 인디오를 말살했고 인종 차별과 은폐화 정책을 통해서 흑인들을 아르헨티나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들이 이런 은폐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동원한 도구가 인구조사라는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인종 분류법에 따라 흑인들은 “미지의”, “알 수 없는” 인종으로 바뀌고 어떤 때는 어느 인종도 특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트리게뇨’로, 심지어는 백인으로 분류되면서 그들은 문화를 포함한 모든 아프리카 정체성을 잃게 되고 공식적으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아프리카 흑인들은 백인 우선의 문명화 정책과 인종 차별주의로 인한 인위적 은폐로 인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잊혀졌다. 이들은 백인 국가로 정의된 아르헨티나 국민으로 통합되기 위해 타의적으로 흑인임을 포기했어야 했고 아르헨티나 사회에 수용되기 위하여 그들의 출신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검은 피부의 아르헨티나인들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흑인사회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들은 갖가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면에 걸쳐 아르헨티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특히 음악, 예술, 춤과 같은 문화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인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에도 그들의 유산은 깊게 남아 있다. 특히, 1990년대 이래, 새로운 아르헨티나의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나이지리아, 말리, 시에라 레온, 라이베리아, 가나, 콩고 등 상당수의 아프리카인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르헨티나에 들어오고 있다. 한편, 페루, 브라질, 쿠바,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에 살던 아프리카 흑인 후손들도 아르헨티나로 유입되고 있다(Kleidermacher 2001). 이렇게 최근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흑인 후손들이 아르헨티나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아르헨티나가 “백인 유럽인”으로 구성된 ‘동종사회’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흑인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그들의 역사, 사회, 문화, 삶 모두를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아프로·아르헨티나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19세기 아르헨티나 국가형성 이래 지배 엘리트가 추구한 문명화 계획 및 고착된 백인신화에 따라 지금까지도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은폐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아르헨티나에 흑인은 없다”라는 말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허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berdi, Juan Bautista(2006), *Bases y puntos de partida para la organización de la República de Argentina*, Buenos Aires: Diferencias.
- Andrews, George Reid(1989), *Los afroargentinos de Buenos Aires*, Buenos Aires: Ediciones de la Flor.
- Bartolomé, Miguel Alberto(2003), “Los pobladores del ‘Desierto’: genocidio, etnocidio y etnogénesis en la Argentina,” *Cuadernos de Antropología Social*, No. 17, pp. 163-189.
- Chamosa(2003), “Lúbolos, Tenorios y Moreiras: reforma liberal y cultura popular en el carnaval de Buenos Aires de la segunda mitad del siglo XIX,” Hilda Sabato and Alberto Lettieri(comp.), *La vida política en la Argentina del siglo XIX. Armas, votos y voces*, Buenos Aire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pp. 115-135.
- Grío, Norberto Pablo(2003), “La desaparición del candomble argentino, los muertos que vos mataís gozan de buena salud,” *Estudios sobre la cultura afro-rioplatense. Historia y presente*, pp. 130-154.
- Contarino Sparta, Luciana(2011), “Africanos en la Argentina: una visibilidad compleja,”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 Estudios de Asia y Africa, X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ALADAA.
- Frigerio, Alejandro(2006), “Negros y blancos en Buenos Aires: repensando nuestras categorías raciales,” *Temas de Patrimonio Cultural*, No. 16, pp. 77-98.
- Frigerio, Alejandor and Eva Lamborghini(2011), “Los afroargentinos: formas de comunalización, creación de identidades colectivas y resistencia cultural y política,” *Aprodescendientes y africano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PNUD, pp. 1-46.
- Fuentes, Carlos(1997), *Latinamericaeui Yeoksa*(El espejo enterrado), Seoul: Kachi.
- Geler, Lea(2004), “Negros, pobres y argentinos. Identificaciones de raza, de clase y de nacionalidad en la comunidad afroporteña, 1870-1880,” *Nuevo Mundo / Mundos Nuevos*, <http://nuevomundo.revues.org/document449.html>
- Goldberg, Marta(1979), “La población negra y mulata de la ciudad de Buenos Aires 1810-1840,” *Desarrollo Económico*, Vol. 16, No. 61, Buenos Aires, pp. 79-91.
- _____(1995), “Los negros de Buenos Aires,” *Presencia Africana en Sudamérica*, Dirección General de Culturas Populares,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pp. 529-607.
- Gomes, Victoria(2005), “Los negros-africanos en la historia argentina,” *Bibliopress*, boletín del Congreso Nacional.
- Guzmán, Florencia(2006), “Africanos en la Argentina, una reflexión desprevendida,” *Andes*, enero-diciembre, No. 17, pp. 197-238.
- Hernández, José(1973), *Martín Fierro*, Buenos Aires: Espasa-Calpe.

- Kleidermacher, Gisele(2012), "Africanos y afrodescendientes en la Argentina: invisibilización, discriminación y racismo," *RITA*, pp. 59-72.
- Lanuza, José Luis(1967), *Una historia de la raza africana en el Río de la Plata*, Buenos Aires: Schapire.
- López, Laura Cecilia, "De transnacionalización y censos. Los 'Afro-descendientes' en Argentina," *Revista de Antropología Iberoamericana*, Vol. 1, No. 2, marzo-julio, pp. 265-286.
- Morasso, Carla(2011), "Eurocentrismo y estudios africanos en Argentina," *Otro Sur digital*, Año. 1, No. 2, Agosto, pp. 1-15.
- Ocoró Loango, Anny(2010), "Los negros y negras en la Argentina: entre la barbarie, la exotización, la invisibilización y el racismo de Estado," *La manzana de la discordia*, julio-diciembre, Vol. 5, No. 2, pp. 45-63.
- Sarmiento, Domingo Faustino(1979), *Facundo*, Buenos Aires: Centro Editor de América Latina.
- Studer, Elena(1984), *La trata de negros en el Río de la Plata durante el siglo XVIII*, Buenos Aires: Libros de Hispanoamérica.
- Suh, Sung-Chul(2013), "Vodushinangwa Jeongchi: Shippalsegui Haiti Noyehaebangundongul Jeonhuhayeo(Vodou and Politics: Through the 18th Century Slave Emancipation Movement in Haiti)," *Iberoamérica*, Vol. 15, No. 2, pp. 45-67.
- Tur Donatti, Carlos M.(2009), "Herencia africana, cultura popular y nacionalismos en Argentina," presentado en el Coloquio Afroamérica, 30 de november, 1 de diciembre.
- Uh, Seok-Kyun(1999), "Domingo Faustino Sarmiento: Kukminkukka Hyoungsungeui Dilemma(Domingo Faustino Sarmiento: The Dilemma of Nation-State Formation)," in Sung-Hyung Lee(ed.), *Latinamericani Yeoksava Sasang*(Latin American History and Thought), Seoul: Kachi, pp. 156-176.

Article Received: 2014.04.08

Revised: 2014.05.13

Accepted: 2014.05.16